

국내 LCD 가동률 정상수준 회복

삼성, TV·모니터 패널 풀가동 ... LG도 파주공장 가동률 90%

세계 LCD 시장에서 1,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의 가동률이 2월 들어 정상에 가까운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 LCD 사업부는 2008년 11-12월 생산량을 5-10% 줄여 사실상 감산에 들어갔으나, 1월부터 가동률이 상승하기 시작해 최근에는 TV와 모니터 패널 라인을 풀가동하고 있다.

LG디스플레이도 2008년 말 파주공장의 가동률을 60% 수준으로 낮추었으나, 최근에는 90% 이상으로 거의 정상화됐다.

경기침체에 따른 수요 위축으로 타이완 기업들의 2009년 1/4분기 가동률이 50% 이하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에 비하면 생산성과 가격경쟁력에서 앞서는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등 국내기업의 가동률이 먼저 회복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3위 기업인 타이완의 AUO의 가동률은 50% 안팎을 기록할 전망이며, CMO는 45%, CPT는 45-50% 정도로 전망되고 있다.

LCD 시장 관계자는 “2008년 말까지 LCD 생산기업들이 감산에 나서면서 재고가 대부분 소진됐고, 2009년 들어 모니터와 IT 패널 수요가 증가하면서 가동률이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조사기관인 디스플레이서치에 따르면, LCD 모니터와 노트북용 패널 가격은 변동이 없었고 LCD TV용 패널도 32인치 이하는 가격 변동이 거의 없었다.

다만, 37인치 이상 LCD TV 패널 가격만 1월 초에 비해 1-2% 정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관계자는 “LCD 패널의 전체적인 가격 흐름은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다”며 “IT용 패널은 수요 위축으로 생산기업들의 재고조정이 가장 먼저 일어나면서 현재 재고가 거의 소진돼 주문이 늘고 있고, 모니터용 패널도 중국 등에서 일시적인 수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9/02/23>